

# 도교육청, 지진업무 역량강화 교육

### 내진업무 관련 담당자 등 기술직 공무원 대상 '내진 보강 사례 워크숍' 개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10일 3일 간 도교육청 소속 내진 담당자와 내진 업무 추진 주무관 등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 사례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진 및 재난 안전과 내진 보강사업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내진 담당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관련 교육과 견학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난

8일 전북과학교육원에서 내진 보강 방법 및 신규 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내진성능 평가 과정 요령을 주된 내용으로 이뤄졌다.

양철민 구조기술사가 내진설계와 내진성능평가의 이해에 대해, (주)건설방재기술연구원 고명환 건축구조기술사가 내진보강 시공사례 강의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내진공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각 교육지원청의 내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현지 견학은 9~10일 이를

간 부산에서 이뤄진다.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에서는 지진·진동 관련 실험장비 및 내진 보강 인증시험 관련 업무를 참관하고 부산연일초등학교와 부산연신초등학교로 이동해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례를 현장 견학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심화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며 "관련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지진 및 재난에 적극 대비하

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56.2%로 전국 평균보다 1% 포인트 낮아 지진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지역 학교 시설물은 내진 설계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시기에 건립돼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학교 시설물 내진율 또한 2018년 36.7%, 2019년 49.0%, 2020년 55.8%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은성기자



## “융복합교육 활성화 해야”

### 서거석 교육감 출마예정자, “전북 인공지능 관련 교육시수 부족”

서거석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8일 김제 원평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청소년 과학교실' 행사를 찾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전북본부(본부장 서거석)에서 주최 및 주관한 것으로, 참가 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다양한 과학교구를 사용해 우주탐사로봇을 직접 제작하고 체험하는 행사다.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이번 과학교실을 통해 2000 미래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활동을 통해 공감, 소통, 공유, 협력 등을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 미래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전북은 융복합 미래교육 분야에서 타 시도에 비해 수업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를 위해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인공지

능 교육 강화 ▲SW-AI 교육 중점 학교 지정 ▲SW융합 학생 자웅동어리 지원 ▲분야별 융복합미래교육 전문교사 양성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지역별 융복합미래교육 센터 개설 등 5대 미래교육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대변화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육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핀란드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AI교육을 보편교육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본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거석 출마예정자는 “교육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별 AI교육 현황'에 따르면 시도교육청간 인공지능 관련 교육시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에서 수업시수가 가장 많은 대구시교육청이 연간 78.8시간인데 비해 전북교육청은 21.7시간이고, 중학교는 대구가 연간 54.5시간인데 전북은 37.5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전주 구도심서 도시재생 디자인展 개최

전주대학교 건축학과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시회인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디자인展'을 오는 16~31일까지 차미중길 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전주에서 선정한 46개 대지의 이야기를 민감하게 들어 이를 반영한 노력의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히 전주역세권 도시재생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주시 차미중길 전시의 연장선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 도시재생센터와 전주대 지역혁신센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리빙랩 프로젝트를 수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을 살펴보고 건축이 담아낼 기능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켰으며, 그 결과로 46개 장소의 개별적 제안을 서로 연결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김준영 교수는 “이번 디자인전을 통해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을 고민하며 마련한 도시재생 스튜디오의 제안으로 전주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10 번째 맞는 전주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젝트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도시 속에서의 건축을 감상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전주대 건축학과는 올해 세종중·고등학교 아이디어 설계 국제공모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매년 건축학과 교수 및 재학생들이 국내 권위의 건축상 및 건축 공모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 도교육청, 학교 방역활동도우미 연장 운영

### 겨울방학 전까지... 코로나19 학교감염 예방 차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안정적인 학사운영,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 방역활동도우미 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학교 방역활동도우미는 2학기 개학에 맞춰 지난 8~11월까지 3개월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중 회

방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학생을 중심으로 한 감염이 계속되면서 겨울방학 전까지 학교 방역활동도우미 사업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도내 각 학교에 배정된 방역활동도우미는 958명이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8억 5,000여 만원이다. 학교 방역활동도우미는 발열체크,

소독,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안내 등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학생 감염 및 신종변이 발생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방역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겨울방학 전까지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방역활동도우미 사업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서초 ‘한이의 책가방’, 전국 어린이연극잔치 단체 부문 ‘장관상’

정읍서초등학교 5학년 2반 연극부(지도교사 노을이)가 제28회 전국어린이연극잔치 단체 부문에서 최고 영예인 금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노을이 지도교사는 개인 부문 최우수 창작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어린이연극잔치운영위원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23~28일 6일 동안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에서 열렸다.

정읍서초는 ‘한이의 책가방’이란 작품으로 지역 예선인 전북어린이연극제에서 최우수 작품을 수상했으며, 지역 대표로 전국의 8개 초등학교와 실력을 겨루 당당히 금상을 차지했다. ‘한이의 책가방’은 3학년 교과서에 수록돼 있는 하씨방 일곱동무(원작: 규중칠우쟁쟁기)를 학용품 버전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냈다.

이에 따르면 한이의 책가방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는 아이 한이가 책가방 속 친구들, 즉 학용품들을 통해 용기를 얻게 되며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재치 있게 그린 작품이다.



5학년 2반 교사와 21명의 학생들은 도교육청의 사제동행 연극 동아리로 등록해 1학기부터 기초 연습 및 연극 놀이로 연극에 필요한 기반을 다져 2학기에 본격적으로 공연 준비에 돌입했다.

희곡의 구성요소와 작법 알기, 이야기 구성하기, 대사 쓰기, 장면 상상하기, 무대 꾸미기 몸짓으로 표현하기, 동선 익히기, 연극 포스터 만들기 등 연극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은 국어, 체육, 미술, 음악 등 다양한 교과목의 통합과 재구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진

행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교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해 공연을 완성시켜 제17회 전북 어린이연극제(영상 공모)에서 최우수 작품상(1위)을 수상했고, 전북 대표로 출전한 전국어린이연극잔치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정읍서초 연극부는 제1회 함양 세계어린이극잔치에 초청돼 8일 함양 학생공연장 무대에 섰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대상자 3명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22년 상반기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2명, 사실상 1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일상



조철호



최정애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4급 승진에 역량평가와 현장평가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5급 재직 기간 동안 주요 업무실적과 서기관으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현장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서기관 승진 대상자들은 2022년 상반기에 승진 임용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